

한인신문



한인신문 FACEBOOK QR코드

취재/광고: +7 707 120 1234

운영/배송: +7 747 674 5800

haninshinmun@hotmail.com

2022년 2월 14일

NO. 12[1143]

Ханин Синмун • Еженедельная газета

14 февраля 2022г.

주요연락처

대사관 (비자, 여권, 공증) +7(717)257-2100
(사건, 사고) +7(705)757-9922

알마티 총영사관 (비자, 여권, 공증) +7(727)291-0490
(사건, 사고) +7(777)705-6634

한민회사무처 +7(747)674-5800
지상사협회 +7(701)880-8600
중소기업연합 +7(705)900-8662
민주평통 +7(701)755-9759

구급차 03, 103
범죄/화재신고 (알마티) 112
(아스타나) 101
가스/전기/상하수도 104, 109
알마티공항 +7 727 270 3333
아스타나공항 +7(717)270-2999

아스타나 문화원 +7(717)290-1113~5
한국석유공사 (아스타나) +7(717)279-0429
(알마티) +7(727)311-0378~9
한국교육원 +7(727)392-9120,3
코트라(알마티) +7(727)222-32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727)274-2500
보건산업진흥원 +7(727)228-2301
관광공사(알마티) +7(727)344-0972
알마티토요한글학교 +7(775)114-5460

알마티 공항에서 도움 필요할 때 +7(701)731-4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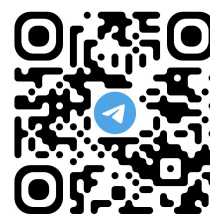
항공편 안내

• 아시아나 항공

매주 목요일(알마티 출발 기준)
* 알마티 출발은 오전 09:25 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에어 아스타나

매주 월, 수(주2회)
*수요일 항공편은 7월 15일부터 운항



카자흐스탄 한민회의 새로운 텔레그램 채널 가입용 QR CODE

2022년에 카자흐스탄 구직자들이 고용주에게 바라는 것은

interview →



2022년의 현실은 이제 취업이 구직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경쟁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제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고용주는 채용 시장에서 좋은 구직자를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HeadHunter에서 2022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채용공고를 볼 때 구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63%의 구직자들이 급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의 구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동기로 고른 것은 주어진 업무에 대한 흥미였다. 이러한 대답은 18~29세 연령대의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와 사무직의 청년들이 주로 대답했다. 이 외에도, 기업문화, 복지혜택, 직장 위치, 커리어 개발 전망, 원격근무 가능성 등과 같은 대답도 있었다.

직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플러스 요인은 의료보험이었다. 응

답자의 30%가 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이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예전과 달리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보인다. 게다가 13%의 응답자는 회사가 만약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채용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63%의 응답자는 의료보험이 좋은 혜택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24%의 응답자는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다고 답했다.

출퇴근 통행버스, 또는 출퇴근 교통비 제공은 응답자의 28%가 답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 다

음으로는 중식비 제공(15%), 스포츠센터 이용비 제공(14%), 할인쿠폰 제공(3%)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플러스 요인으로 숙소, 인터넷, 교육에 대한 비용 제공이나 보상금 제도, 업무 시간의 유연함 등을 선호했다. /포브스

Кескін моделденген. Түстердің қолжетімділігі елі мен жеткізушінің байланысты болады. 5G қолжетімділігі байланыс операторына, аймағы мен ОМ, нұсқасына байланысты болады. Изображение смоделировано. Доступность цветов зависит от страны или поставщика. Доступность 5G зависит от оператора связи, локации и версии ОС.



SAMSUNG

Galaxy S21 FE 5G

카자흐스탄 국민 소득 연 12% 증가해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자금 소득은 분기당 211,000텡게까지 증가해 연간 12% 증가율을 보였다. 2021년 3분기 결산 이후 국민들의 소득은 210,700텡게까지 증가했고 이는 11.5% 증가한 것이라고 Finprom.kz에서 보도했다.

2020년 동일한 기간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수입은 189,000텡게였고 이는 그 전해에 비해 7.5% 증가한 것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큰 곳은 수도로 3분기에 293,100텡게로 집계되었고 연간 15.7% 증가한 것이다. 이 외 상위 3개 지역에 포함된 곳은 카라간다주(273,700텡게, +18.1%)와 알마티(254,000텡게, +6.9%)였다.

가장 소득이 적은 곳은 투르케스탄주로 135,300텡게를 기록했고 이는 연간 22%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투르케스탄주는 소득이 가장 적었지만 연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간 증가가 가장 작은 곳은 알마티주로 180,500텡게로 집계되며 연간 증가는 3.9%로 확인되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가장 큰 수입원천은 노동을 하고 받은 것으로 148,000텡게였고 이는 작년에 비해 16.4% 증가했다. 그 중 127,400텡게는 고용된 형태로 받은 급여였고, 20,600텡게는 프리랜서와 사업에 의한 수입이었다.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연간 1% 증가해 53,400텡게로 집계되었다. 그 중 44,100텡게는 연금이었고, 8,300텡게는 보조금, 966텡게는 장학금, 80텡게는 지역적 주거 지원이었다.

친적, 지인, 양육인의 금전적 후원은 연간 5.2%에서 6.2%로 증가했다.

대통령의 의견에 따르면 제한된 엘리트 그룹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대부분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한다. KPMG를 포함한 국제적 전문가들은 겨우 162명만이 카자흐스탄의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절반의 국민들의 소득이 5만텡게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 7월 1일까지 국가지불 시스템 출시 계획



국립 은행의 갈림잔 피르마토프 회장이 은행 간 카드 지불 시스템과 즉시 지불 시스템의 출시를 발표했다고 텡그리뉴스는 보도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국립은행은 은행 간 카드 지불 시스템과 모바일 온라인 지불 서비스를 위한 즉시 지불 시스템과 같은 국가 지

불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출시했습니다. 현재, 국가 지불 시스템 기능에 필요한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가 개발됐고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식 출시가 예상됩니다."라고 피르마토프 회장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회의에서 전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2021년에는 국립은행이 '디지털 텡게'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프로토타입 플랫폼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12월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편의 및 비용 평가와 함께 디지털 텡게 구현 모델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라고 피르마토프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텡그리뉴스

카작 3월에 텡게 예금 최대금리 설정해

카자흐스탄 예금보장기금은 2022년 3월에 최대 권고 텡게 예금 이율을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12개월 예치 정기에금의 최대 이율은 0.3% 인상되어 중고 입금 없이 11%, 중도입금이 가능한 경우 10.7%이다.

3,6,24개월 정기에금과 24개월 저축예금의 최대 금리는 이 부문에 개걸 은행의 예금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2월 수준에서 유지하게 되었다.

2022년 1월 24일 기준금리에

따라 기존에 개정된 정기에금 상한 금리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카자흐스탄 예금보장기금은 2022년 1월 11일 국내 금융 안정화를 지지하기 위해 3,6,12개월 예금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이제 상황이 안정화되는 것을 고려하고 이러한 유형의 예금 가운데 시장의 일반적 평균 금리를 적용해 2022년 3월부터 3,6,12개월 최대예금금리는 점차적으로 낮추기로 결정을 했다.

/자콘

www.rakhat.kz
rakhat@rakhat.kz

«LOTTE RAKHAT» JSC, Kazakhstan,
Almaty, 2a, Zenkov str.



QUALITY SINCE 1942

LIFE IS TASTIER WITH US!



카작 국민들은 왜 절반의 수입을 식료품에 지출하고 이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지출 비중에서 거의 절반이 식료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와 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며 Tengrinews.kz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생활 수준 측정에서 카자흐스탄 1인당 3분기 평균 지출은 206,419텐게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식료품 지출이 그 중 52.8%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액으로는 109,010텐게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상황이 1분기와 2분기에도 나타났으며 모두 51~52%의 비중을 식료품에 지출했다. 2020년 1년 총 집계를 보면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은 53.9%를 차지했다. 결국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지출에서 거의 절반이 식료품에 지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경제학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Ulagat Consulting Group의 대표이자 경제학자인 마라트 카이르렌노프 씨는 국민의 식료품 지출 수치는 국내 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지출과 소득, 실질적인 소득 수준 등과 같이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매우 광범위한 공식적 통계 자료 목록 가운데 국민들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주요한 지표 중 하나로 최근 국내 사회 정치적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만약 2021년 2분기, 3분기에 식료품에 지출한 것이 모든 지출에서 53%의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례를 봅시다. 11월

~12월에 식료품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을 고려해도 4분기에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이며 이는 한 해동안의 데이터를 보아도 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살펴봅시다. 20세기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겪었던 중부 유럽과 동유럽은 현재 EU 회원국입니다. 이 곳에서는 가계의 식료품 지출 비율이 전체 지출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루마니아에서도 이 비율은 25%를 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의 빈곤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경제학자는 설명했다.

마라트 카이르렌노프 대표는 국민들의 실질적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국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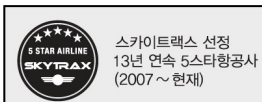
모든 분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의 자금이 먹는 것에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지출 목록, 예를 들어, 교통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의류 구입 비용 등등에 사용할 돈은 더 적어진다는 것이고 물론, 여행, 오락, 교육, 등 삶의 중요한 다른 부분에도 지출할 돈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에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는 결국 식료품에만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다. 경제학자는 전성기 이후 식료품 지출 비율에 대해 언급했다. 2007년 경제 위기 이전 카자흐스탄 국민의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6%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먹을 것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텡그리뉴스

한인신문 후원사 목록

삼성	1면
롯데라하	2면
아시아나항공	3면
신한은행	4면
AK Group	5면
한국K-방역 시스템	7면
유니온파트너스	7면
UNION DENTAL CLINIC	7면
KYL LOGISTICS	8면
루벤스 여행사	8면
한국 개나리 벽지	9면
CNK 알마티 로지스틱스	11면
골든투어 카자흐스탄	13면
이모네 식당	14면
두레	14면
세븐마트	14면
다사랑/다사랑 마트	14면
늘푸른건강원	14면
GS Oil	14면
NAVIEN 보일러	14면
한솔한의원	14면
CIS Group	14면
중앙아시아허브교회	14면
알마티 한인교회	14면
방울토마토 미용실	15면
알마티 좋은 부동산	15면
Hannah E-Children Center	15면
명가식당/마트/게스트 하우스	16면
애플렌터카	16면
마시소강남카페	16면
태웅로지스	16면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한인 신문물
 후원해주시는 후원사(광고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고 개선해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 여정 아시아나와 함께 하세요!

마음을 다하는 정성 어린 서비스로
여러분의 여행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 및 문의 • +7-727-356-3235 • flyasiana.com

A STAR ALLIANCE MEMBER



파산에 관한 법 카자흐스탄 국민 해외 출국 금지 포함해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재정부 차관은 파산에 관한 법 내용에서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Tengrinews.kz 통신원이 보도했다.

누르술탄 중앙 언론 센터에서 술탄가지예프 차관은 개정안과 구상안이 가지는 특별한 목적성에 대해 브리핑했다.

“오늘날 매우 많은 국민들이 악화된 재정상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 또는 전체 경제 악화 상황에서 복지수준의 악화 등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오늘날 백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대출 상환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는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자산이 없는 관계로 돌아온 공정문서의 금액은 약 40억 텡게에 달합니다.”라고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재정부 차관이 설명했다.

차관은 개인의 파산 제도 도입에 관한 업무를 재정부에서 복구했다고 언급했다. 국제적인 사례를 고려했을 때 부채의 금액과 기간에 따른 3가지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1. 법률에 의해 개정된 초안에는 지급 능력 회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부채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원금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재판을 통해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5백만 텡게를 초과하는 부채가 있을 경우, 상환 계획은 재무 관리자와 공동으로 작성하고 법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서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 판매와 같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만약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파산을 적용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재판 파산이다. 이는 3가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은행과 소규모 신용대출기관에 5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부채가 12개월 이내 상환되지 않았고 부채 금액이 30만텡게를 넘지 않으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부채가 5백만텡게 이하이면서 6개월 동안 상환하지 않은 사람도 파산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무재판 파산 적용 신청서는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E-salyk azama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서류가 접수된 뒤에는 규정에 맞는지 자동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 자산이 없는지 부채 기간 등 조건에 합당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 재판을 통한 파산은 1,600MCI인 5백만텡게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채무자의 자산은 매각의 대상이 된다. 판매된 금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만약, 주택이 한 채만 있고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재판 파산 과정에서 이를 철회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에게는 항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머지 부채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징후가 없는 경우 상각된다.

양육비와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손상을 끼친 것에 대한 합의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상각 가능성과 함께 파산 신청에 대한 제한도 검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파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파산 신청을 위해 5년간 대출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3년간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 및 친척과의 동행, 장례식 방문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경우는 예외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재정부 차관이 설명했다.

술탄가지예프 차관의 말에 따르면, 재파산신청은 파산신청을 하고 7년이 지난 뒤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이로 인해 가능한 결과와

제한적 사항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파산 적용은 개인이 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라며 차관은 브리핑은 마쳤다. /텡그리뉴스

알마티에서 부동산 가격 연간 33% 상승해

Krishna.kz 분석가들은 연간 주택 가격 증가에 대한 카자흐스탄 도시 순위를 작성했다.

1위를 차지한 곳은 악타우로 주택 매매 가격은 41% 증가했다. 2위는 악토베로 35%, 다음은 크즐오르다로 34% 인상되었다.

알마티는 4위로 33.7%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서 원룸 아파트의 경우 1,700만 텡게에서 2,300만텡게까지 인상되었다. 방 2칸의 경우 2,400만에서 3,200만 까지, 방3칸 아파트는 3,100텡게에서 4,100텡게까지 인상되었다.

누르술탄은 순위의 중간에 있었고 연간 25% 인상되었다. 가장 작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페트로파블롭스크와 콕세타우로 15~16% 정도 인상되었다.

분석가들은 가격 인상이 계

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달동안 주택 가격은 평균 3% 인상되었다. 2021년에 주택 임차비는 연간 평균 17.5% 인상되었다.

/인알마티



SHINHAN BANK

EXPERIENCE WORLD CLASS FINANCIAL SERVICE

One Shinhan

우즈벡 대통령 모욕한 블로거 3년 징역 선고



호레즘 주 법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초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블로거 소비르존 바바니아조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지자흐 주에서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또 다른 블로거가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된 바 있다.

하자라스프 지방 법원이 2월 3일 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초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블로거 소비르존 바바니아조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에즈굴릭' 인권단체 회장 압두라흐몬 타사노프는 전했다.

형사 사건 자료에 따르면, 31세의 블로거는 Bloggerlar Birlashmasi(블로거 협회) 그룹에 가입했으며, 그곳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을 모욕 및 명예 훼손하는 행위' 동영상

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4월 21일자 법의학 언어적 검사 결과에 의거하여 소비르존 바바니아조프는 형법 158조 3항(언론 또는 기타 매체, 통신망 또는 인터넷 사용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모욕 또는 비방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또는 2~5년의 자유 제한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에 따라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블로거는 심신미약 상태, 즉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인권단체 회장 타사노프는 전했다.

하자라스프 지방 법원의 무투 루즈메토프 판사는 바바니아조프가 유죄임을 확인하고 3년 형을 선고했다. 하자라스프 주 부스톤 마을에 거주하는 블로거는 현재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는 20일 이내에 법원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판결 발효 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지자흐 주 검찰청은 블로거 발리온 칼로노프(1969년생)가 대통령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개혁을 일반 대중에게 잘못 해석하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포하고 그를 비방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형법 제158조 제3항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권단체 회장 타사노프 말에 따르면 법의학 건강 진단 결과 발리온 칼로노프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그 결과 그는 강제 치료를 위해 사마르칸트의 제1 정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제타우즈

카작에서 미성년자의 관광 항공료 보조금 지급

관광상품에 포함된 미성년자 승객의 항공권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규정(2021.12.07자 문화체육부장관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됐다고 자론이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내에서 관광 목적으로 여행하는 미성년자의 항공권 비용

은 정부가 지불한다. 혜택 대상은 카자흐스탄 시민권이 나 영주권을 소유한 만 2세에서 18세 미성년자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 관광 분야 여행사로부터 구매한 관광상품에 포함된 미성년자 승객의 항공권 비용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행사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카자흐스탄 관광청에 보내야 한다.

여행사는 매년 12월 20일까지 해당 회계 연도에 할당된 보조금 사용 정보를 승인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론

한인회 & 교민 동정란

한인회 소식과 교민·기업들의 짧은 소식을 모아서 전합니다.(예:모임,부임/귀임,관혼상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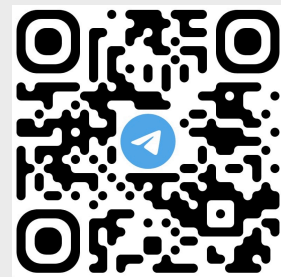
신규 후원사(광고주) '태웅로직스'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6면을 참고해 주세요.

신규 후원사(광고주) 'CNK 알마티 로지스틱스'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면 광고를 참고해 주세요.

신규 후원사(광고주) '알마티 부동산'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5면 광고를 참고해 주세요.

기존 후원사(광고주) 'Massiso 카페강남'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6면 광고를 참고해 주세요.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나 행사 안내 등 교민 전체를 대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모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먼저 설치하고 아래 표시된 QR 코드를 어플로 스캔하면 채널에 올라오는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쌍방 대화가 아닌 중요 공지 및 소식 전하는 단방향 채널입니다. 여러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는 단체 채팅방이 아니니 수시로 울리는 알람으로 인한 디지털 스트레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13대 카자흐스탄 한인회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회장: 강병구
- 수석부회장(사무처장 겸임): 박태상(+7 777 400 3199)
- 사무처 실장: 강우환(+7 747 674 5800)

카자흐스탄 지상사 협의회

- 회장: 박균열
- 총무: 김요셉(+7 701 880 8600)
- 이메일: yosep@shinhan.com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연합회

- 회장: 김성태(+7 701 726 9730)
- 총무: 조주연(+7 705 900 8662)
- 이메일: chocho6652@naver.com

Law Firm AK

Law Firm AK는 대한민국 법무법인 지평과 제휴하여 카자흐스탄 및 CIS국가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소중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기업 및 투자 법률 자문

- 법인(지점) 설립 및 청산
- 카자흐스탄 기업 법률실사 및 M&A
- 카자흐스탄 현지 노동법 자문
- 카자흐스탄 기업 법률 자문 등

소송 대리

- 중재 및 소송 수행
- 보전처분 및 집행절차 대행
- 사설공매절차 대행
- 소송 코디네이션

/카자흐스탄 주재 변호사/ 양용호 변호사 • +7 701 537 0599
김태영 변호사 • +7 775 386 4400

Tax&Accounting Firm AK Partners

AK Partners는 다년 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진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회계 및 조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건설면허, 취업허가, 비자 등 인허가 업무도 신속 정확하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및 세무 자문

- 회계 기장 자문 및 대행
- 세무 신고 자문 및 대행
- 회계 세무 실사
- 조세 전략 자문

인허가 자문 및 대행

- 건설면허 취득 자문 및 대행
- 취업허가 취득 대행
- 비자 및 초청장 발급 업무 대행 등

/카자흐스탄 주재 컨설턴트/ 배상현 대표이사 • +7 777 705 8822
서유진 과장 • +7 701 973 5554



KF 장학금과 한국학 신진세대 육성

베갈리에바 마르잔, 이병조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캠퍼스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다. 지난 2주 간의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봄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새해 초부터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에게도 교원들에게도 평범하지 않았던 겨울 방학 기간이었다.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비로소 찾아 든 평온함 속에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동방학부 건물층층마다 들려오던 학생들의 정겨운 목소리와 인사 주고받는 소리가 더없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러한 평화 속에 더해 지난 2월 3일에 알마티 한국총영사관에서는 대학원 석박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뜻깊은 장학금전달식이 있었다. 이

것은 Korea Foundation(KF,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카자흐스탄 내 한국학을 전공으로 하는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들-석박사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지원사업으로, 벌써 수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연례행사이기도 하다.

KF는 해외한국학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 외교부 산하의 대표적인 학술기관이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해외의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 석박사생 초청세미나와 교육연수 프로그램, 박사급 연구 펠로우십 프

그램, 객원교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해외 한국학 교육기관들을 상대로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 사업들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6명의 석박사생들이 큰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장학금전달식은 지난 해처럼 한국총영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금액의 장학금 지원은 수혜 대학원생들 모두에게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장학금을 받아 든 장학생들의 환한 웃음처럼, 장학생들 또한 더욱 분발하여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해 본다.

지난 가을 신학기에도 40명의 신입생들이 한국학과 학사 과정에 입학했다. 4년 연속 40명 이상의 신입생들이 한국학에 입문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더 높아진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위상, 그리고 식을 줄 모르는 한류와 한국어에 대한 뜨거운 배움의 열기 등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물론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가장학금의 비중을 더 높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2년 넘게 지켜우리 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한국학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감사할 만한 일이다. 현재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180여명의 학부생과 대학원들이 한국학 공부와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에 20여명의 한국학 교강사진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급여 속에서도 한국학 교육의 현장을 지키며 우수한 인재 육성에 매달리고 있다.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는 1994

년 개설된 이후 카자흐스탄 한국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매해 실시되는 대학 자체평가에서는 교내 67개 학과들 중에서 늘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지도부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2019-20학년도 67개 학과 중 1위). 한국학과의 이러한 위상 제고

에는 KF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도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학금을 제공해 준 KF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나아가 매해 지속되어 가는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KF 간의 교류와 협력이 한국학 신진세대 육성과 발전에 더 큰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우즈벡, 특정 상품에 대한 부가세 폐지 4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사브캣 미르지예프 대통령이 세금 코드 수정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2022년 4월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식용유, 육류, 가축, 감자 및 냉동 생선에는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회 신문 '나로드노예 슬로바' 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이 수정되기 전 부가 가치세 면제 유효기간은 2021년 12

월 31일까지였다. 앞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바나나와 감귤류에 대한 수입 관세를 2022년 5월 1일까지 면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즈베키스탄

의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국가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식품 수입은 16.2% 증가한 미화 7억 9,920만 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 연방은 우즈베키스탄에 식용유(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입량의 66.2%), 마가린(80.8%) 및 유제품(37.2%)을 공급하는 1위 국가다. /스푸트니

KYL LOGISTICS

Bulk Cargo
Container
Air Cargo

(주)케이와이엘이 2021년 1월 06일을 기하여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고난의 12년 세월을 지나 지금 이렇게 서있게 해준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의 덕분임을 알기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EOUL: +82 2 711 7170 / ALMATY: +7 701 484 0267 / www.kyl.co.kr

루벤스 여행사 아시아나 항공 판매 대리점

- 항공권 판매
- 호텔 예약
- 누르다우 쿠폰판매 (최소 1장구매가능)

RUVENS CORPORATION | 누르다우 비즈니스센터 2V 804호 / +7 727 311 1745, +7 701 786 2334(러,한) | almaty@ruvens-kz.com / www.ruvens.kz



세계속 한국인의 소중한 마음. 투표로 보여주세요

Let the True Voice of Koreans
in the World Be Heard by Your Vote.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2. 02. 23. ~ 02. 28.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매일 08:00~17:00
Every day from 08:00 to 17:00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Individuals who have reported as an overseas absentee or registered as an overseas voter

준비물 Requir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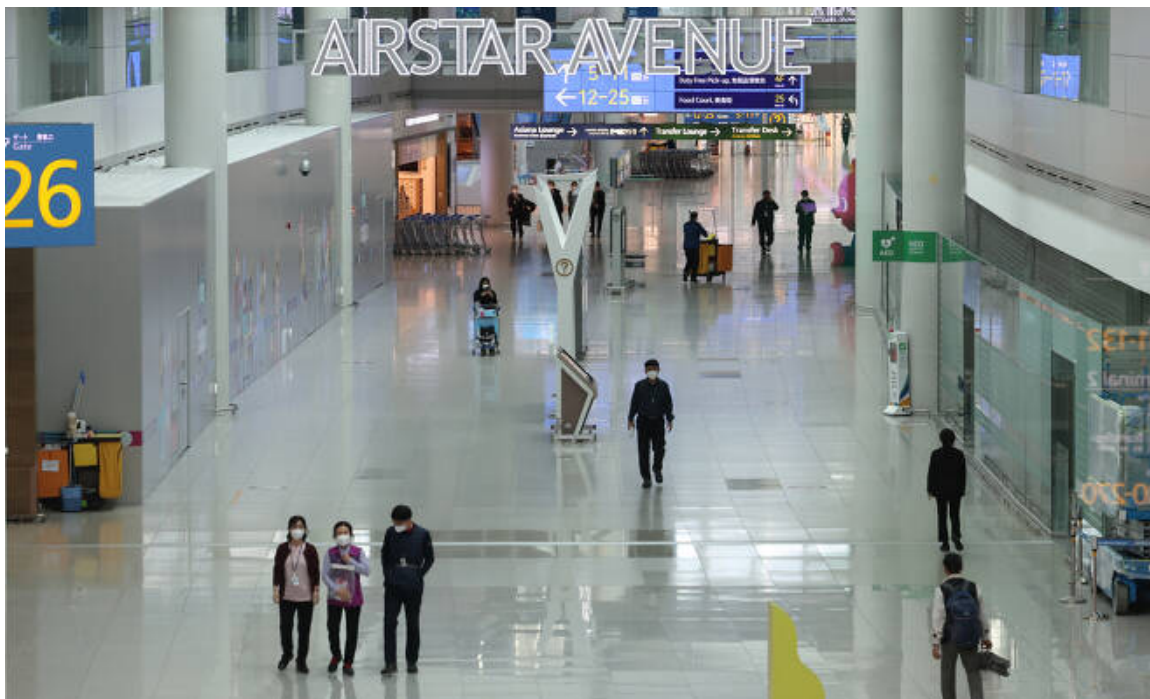
- 재외선거인 :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서류원본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외부재자 : 신분증명서
- Overseas voter : Identification + Original copy of proof of nationality
* With an original copy of proof of nationality with a photo attached, an identification card is not required.
- Overseas absentee : Identification

투표장소 Voting Location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As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s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 '부가세 면제' 희귀 의약품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다음달 43년 만에 폐지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에 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

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늘려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체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된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 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 등 e-스포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 종목을 정했

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히토류나 요소수 등 국내 공급 기반이 취약해 연구개발이 시급한

핵심 품목 관련 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 시설 지원 범위는 총 11개 분야 181개로 늘어났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멸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원래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철거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거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우크라이나 돕자" 기부수단 각광받는 암호화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무기 부족분 등을 채우기 위해 서방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구를 재정적으로 도울 강력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업체 앨립틱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내 정부군을 지원하는 단체인 컴백 얼라이브(Come Back Alive)는 지난해 하반기에 총 14차례에 걸쳐 암호화폐를 통해 17만달러(약 2억원)를 모금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위치한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드론과 저격용 스코

프, 이동식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군수품과 의료품을 공급하고 있다.

로이터는 컴백 얼라이브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디지털 지갑 주소와 은행 계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글로벌 결제 코드가 적혀 있다고 전했다. 단체 측은 "암호화폐로 모금한 돈은 미래 프로젝트를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부자들이 먼저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

러며 여러차례 요청했고 이들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사이버활동 단체인 '우크라이나 사이버 동맹'도 지난해 암호화폐로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크라이나 해커들의 공동체"라는 소개와 함께 비트코인 디지털 지갑 주소가 적혀

있다. 우크라이나 사이버 동맹 대변인은 로이터에 "러시아 안보 및 정치권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우크라이나 군부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다른 우크라이나 단체인 미로트보레츠 센터(Myrotvoretz Center)는 1년 간 100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기부 받았으며 최소 26만7000달러(약 3억2000만 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P&C 한국 K-방역 System

세균, 곰팡이, 녹조, 코로나-19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방역(친환경 살균, 소독, 탈취)
소독제: 이산화염소수 (ClO2)
차아염소(락스) 대비 2.5 배 이상 강한 살균력
차아염소(락스) 대비 5배 이상의 소독력
친환경 산소계 소독제(식약청 사용권고 소독제)

BURE GOOD FOG 초미립자 무선 분무기/강풍 청소기 (8m~10m 분사력으로 빠른 방역 소독)
BURE LTE 초미립자 유선 분무기/강풍청소기 (8m~10m 분사력으로 빠른 방역 소독)

★★ 전신소독 발열체크기 판매 ★★

방역 문의 및 판매, 임대: +7 776 697 88 00 (한국어)
+7 776 702 33 00; +7 727 269 54 47 (카자흐어/러시아어)

유니온 파트너스

www.unionp.kz

- /인허가 등록 업무/ 의약품·의료기구·의료장비
- /면허 발급 업무/ 의사면허·병원허가·전문인 면허
- /등록 업무/ 화장품·건강식품·해산물
- /영주권 취득·연장/

+7 747 811 8971(러) info@unionp.kz
+7 701 218 0634(한) hmy600@hanmail.net
#204, BC "Ambassador", Block-45, Line-22, Almaty
잔도사바 - 로즈바키예바

유니온 덴탈 클리닉
«UNION DENTAL CLINIC»

- 최신 한국 치과 장비 및 진료 시스템
- 최신 CT 및 DIGITAL 장비보유
- 서울 참좋은 치과 협진 병원

(코로나 기간 한국 의사 부재시 실시간 영상 진료)

+7 777 132 17 42 (러시아어)
+7 727 983 43 53 (한국어)
www.uniondental.kz

주소 아바야 150/230 3블록 1층

아바야
GaukharTas Building
Rozbakiev 거리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초읽기.. '조건부 승인' 유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필수신고 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최종 결과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수일 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기 위해서는 일부 독점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을 반납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총 119개 관련 시장(노선)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화물은 여객에 비해 신규 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서비스가 동질적이므로 경쟁

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면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정 기준의 슬롯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심사보고서의 방향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오후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



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

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EU·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엄마보다 나은 '아빠효과'를 아시나요?



공동육아로 점점 바뀌는 추세지만 아직, 우리나라 육아의 주도권은 아직 엄마에 있다. 그러다 보니 아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이 교육에서 대부분 엄마가 말로 지적하고 훈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빠의 말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아빠효과(father effect)'란 말도 여기서 나온다. 엄마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아빠는 아이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엄마의 눈으로만 아이의 행동을 파악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이의 행동이 시작도 되기전에 간섭하거나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육아를 주도하고 있던 엄마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아빠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전에 미처 몰랐

던 아이의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엄마의 감성과 섬세함은 아이의 사소한 것에 공감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데 비해 아빠의 무심한 듯 객관적 시각은 아이에게 강인함을 선사한다. 아빠의 관점은 이미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긴장을 풀고 다시 아이 눈높이에서 생각할 여유를 찾게 하기도 한다. 다음은 상황에 따라 아이에게 힘이 되는 아빠의 말들이다.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재밌는 질문이네!"

아이들은 종종 어려운 질문을 한다. 진지한 아빠는 과학적인 해답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

거나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뭔가 설명하다 안되면 원래 그런거라고 답을 회피하기도 한다. 아이의 질문에 과학적·논리적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멋진 질문인데? 재미있는 질문이네! 좋아 왜 그런지 같이 생각해볼까?" 라는 말로 공감해주는 일이다.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답을 같이 찾아도 괜찮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답변은 시간이 지나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알려줘도 늦지 않다.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 "좋은 걸 알았네!"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점을 알아채는 아이들의 한마디에, "그렇구나"라고 끝내기 쉽다. "신기한 걸 알아냈네! 아빠도 몰랐는데~"라며 아이의 발견을 칭찬해주는 한마디면 아이는 뿌듯해 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물을 볼 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더 많은 발견을 해내는 데 힘이 된다. 발견에 호응을 해주는 아빠의 한마디가 통찰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로 만든다.

둘만 아는 신호나 말 만들기 =

"엄마한테는 비밀~"

아이들은 비밀을 좋아한다. '비밀'을 활용하면 아이와 더 가까운 사이로 만들 수 있다. 아이와 산책하러 나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면서 "쌩~!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말해본다. 둘만의 비밀이 공유됐고, 평소엔 엄마가 못 먹게 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준 것만으로 아이는 아빠에게 믿음을 갖는다. 둘만의 비밀놀이가 흑여 아이가 엄마에게 말해서 '발각'되더라도 아빠와 자녀 사이에 생긴 유대감은 더 굳혀져 있다. 또한 아이와 비밀스러운 어떤 신호를 만들어, 특정한 상황에서 주고받는 것도 좋다. 아이는 아빠와의 비밀스러운 교신으로 재밌어 할 뿐 아니라 든직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아이가 잘 못했을 때 = "노력했으면 됐지!"

아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고 핀잔주기 쉽다. 아이의 어깨는 움츠러든다. 아빠의 냉정함으로 아이의 못한 부분이 더 눈에 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한 부분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의욕을 갖게 해주



개나리벽지

공장/창고 임대

디지털 도어록



문의:
8(777)400 3199(kor)
8(701)646 6695(rus)

는 것이 첫번째다. 아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실패했을 때는 결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 인정해주고 잘한 부분을 찾아 칭찬해준다. 근엄하고 무섭기만 한 아빠의 인정과 칭찬은 어쩔 때 엄마의 그것보다 아이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자. /코메디닷컴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 '보도지침' '오프더레코드'를 어긴 조선의 기자_1

전통적인 의미의 조보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활자로 대량 인쇄되지 않고 필사의 형태로 배포되었다.

“조보는 전쟁 중에도 발행됐습니다”

조보가 문헌(조선왕조실록)에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조 중종 때였다. 영사 성희안이 중종 임금에게 고한 내용 중에 있다.

“1508년(중종 3년) 신(성희안)이 지난번에 북경을 떠나 요동에 도착했을 때의 조보(朝報)를 보니 논박을 받아 산관(散官·면직)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탄핵을 받아 경질된 신료들의 기사를, 그것도 요동땅에서 보았다는 것이다.

성희안이 본 것이 조선의 조보라면 이미 중종대에 중앙에서 발행한 조보가 중국땅(요동)까지 배달되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조보의 전달 시스템이 요동땅까지 구축될 만큼 체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15년(중종 10년) 대사헌 권민수는 “모든 국사에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승정원의 직무유기 때문”이라 비판하면서 조보의 국가기밀누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모든 국사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승정원이 잘 단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결정되면 외부인이 먼저 알고서 ‘오늘은 무슨 일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어찌 나라의 큰일이 이처럼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종 임금의 답변이 의 미심장했다.

“조보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다(朝報之事自古有之). 그러나 승정원 스스로 비밀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조보란 중종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1597년(선조 30년) 지평 남이신의 언급에도 조보의 역사가 뿌리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선조가 “(국가비밀유지를 위해) 조보를 없앤다”는 명령을 내리자 남이신은 “우리나라에서 조보의 유래가 오래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조보는 난리통에도 발행했고, 임금이 피란했던 시기에도 나왔습니다. 잠시라도 발행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명나라 장수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보 발행을 중단하면 오히려 중국 장수들의 의심을 살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심지어 임금이 도망다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조보는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조보의 호외 형식인 분발(分發)이라는 용어는 태종 때인 1413년(태종 13년)부터 등장한다. 분발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조보의 발행 전에 먼저 조안해서 회람하는 일이다. 이때의 기록은 “사헌부가 이방녹사(吏房錄事·승정원의 하부관리)를 탄핵했는데, 그 이유가 분발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12월16일의 아조(衙朝·매월 6번씩 임금에게 올린 업무보고)에 승정원 서리(이방녹사)가 분발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상관들은 3엄(嚴·임금의 거동 때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세 번 치는 북소리)이 끝난 뒤에야 출근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승정원 서리가 늦게 분발하는 바람에 당상관들이 임금과의 대면업무보고에 단체로 지각했다는 것이다.

조보의 기자는 승정원 7급 공무원

이미 밝혔듯이 조보는 일종의 관보라 할 수 있다.

임금의 전교와 답화, 유생과 관리들의 상소문과 임금의 답변, 관리들의 임면, 중앙 및 지방 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고서 등 모든 정사업무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과 기문기사(奇聞記事·가십)도 실었다. 조보를 발행한 관서는 국왕의 비서조직인 승정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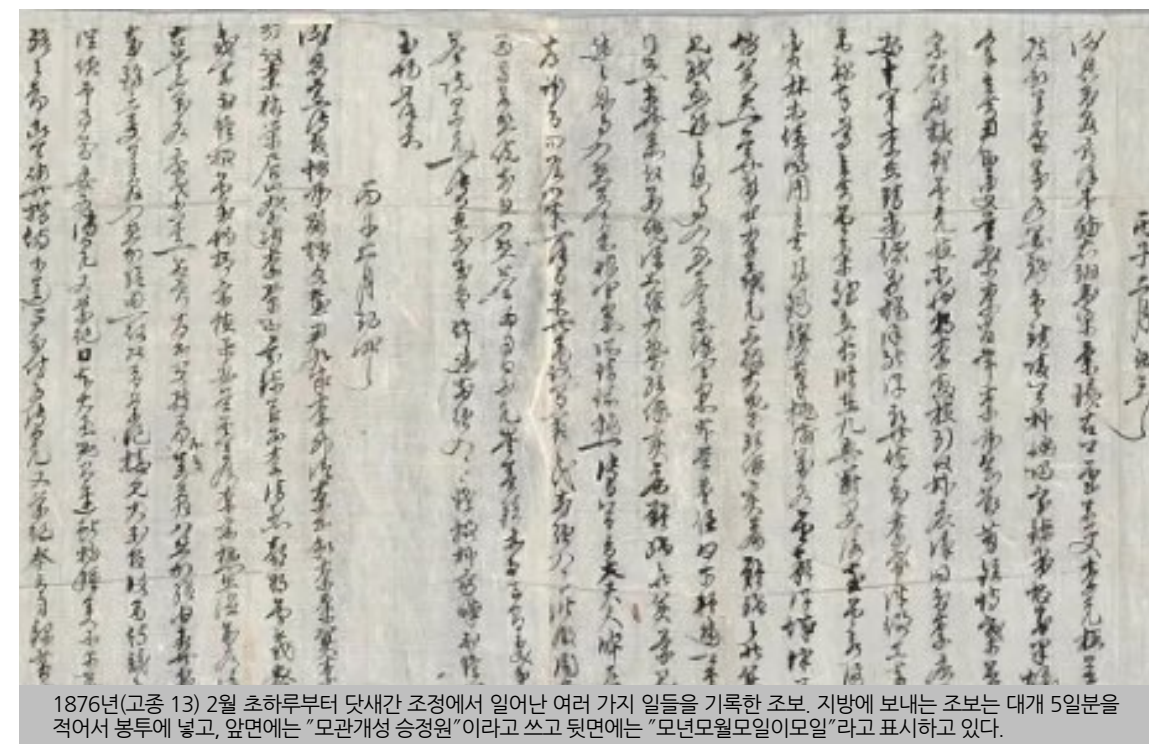
특히 임금의 지근거리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이들은 주서(정 7품) 2명과 가주서 1명이었다. 기사 작성 같은 실무는 주서 및 가주서가 담당했고, 총책임자인 도승지가 감독했다. 언론사의 기자가 기사를 쓰고 데스크의 손을 거쳐 편집국장 책임 아래 보도하는 식이었다.

물론 사헌부와 사간원 등의 서리들도 조보의 편집에 일정 부분 간여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렇게 선별 편집된 기사를 기별청(조보소)에 붙이고 각 관청에서 파견된 기별서리가 조보의 내용을 베껴 오면(필사) 기별군사들이 해당 부처에 배포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관청에는 누가 배달했을까. 중앙과 지방의 사무연락을 위해 지방 수령이 파견해둔 아전인 경주인(京主人) 등이 담당했을 것이다.

“악필 기사를 경질하소서!”

원고지에 손글씨로 기사를 써서 넘겼던 1990년대 이전까지 ‘악필 기자’는 원성의 대상이었다.

데스크와 편집자, 교열자는 괴발개발 무슨 글자인지 모르게 흘



1876년(고종 13) 2월 초하루부터 닷새간 조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조보. 지방에 보내는 조보는 대개 5일분을 적어서 봉투에 넣고, 앞면에는 “모관개성 승정원”이라고 쓰고 뒷면에는 “모년모월모일이모일”라고 표시하고 있다.

린 기사를 보고 비명을 지르기도 일쑤였다. 만약 조선시대였다면 그러한 악필 기사는 ‘글씨를 못쓴다’는 이유로 경질되었을 것이다. 1600년(선조 33년) 사헌부가 승정원 가주서 이형원을 탄핵했다. 이유는 ‘졸필’이라는 것이었다.

“가주서 이형원은 비밀스러운 조보를 졸필로 어지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도대체 해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질하소서.”

주서와 승지뿐이 아니었다. 조보의 내용을 제때 필사하지 않은 기별서리도 중벌을 받았다. <형전사목>은 “만약 임금의 전교를 다음 날까지 조보에 신지 않거나 판보하지 않을 경우 유배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제때 소식을 알려야 하는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기자(기별서리)를 엄벌에 처한 격이다.

‘이것은 오프더레코드다. 발설은 국기문란이다!’

조보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오프더레코드’였다. 임금은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오프더레코드’를 걸기 일쑤였다. 국가기밀의 누설방지 차원에서 제한한 일도 많았다. 특히 명나라군과 왜군이 강산을 누볐던 임진왜란·정유재란 때는 더더욱 민감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선조 27년) 선조와 류성룡이 명나라 파병군과 왜군, 그리고 조선의 정세를 두고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영상(류성룡)과 과인이 나누어 이야기는 조보에 내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이 알까 두렵다. 적병과 밀통하는 정탐자가 성중에 오갈 수도 있지 않느냐.”(선조실록)

1596년(선조 29년) 선조는 작은 관청들이 조보를 베껴 읽게 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는 비망기를 내렸다.

“우리나라의 조보는 누구나 베껴 읽고 있다. 조종조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 비록 군사비밀이 아니어도 국정을 수행하는 데 방해된다. 게다가 아직도 서울에는 중국인 관원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체로 중국인들의 속셈은 헤아리기 어렵다. 모든 일을 면밀하게 실행 것이다. 앞으로 큰 관청이라면 몰라도, 작은 관청에서는 조보를 베껴 배포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그러나 임금이 ‘오프더레코드’라고 신신당부한 내용을 조보에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담당 주서와 승지는 당연히 문책을 받았다.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 때 조선 조정은 명나라 파병군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매사 노심초사했다. 조정에서는 “(정유재란 때 파병된) 명나라 장수 양원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다”느니, “명나라군을 압록강 근처에 주둔시키고 그들의 의중을 살핀다”느니 하는 논의를 한창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와 같은 논의 내용이 조보에 버젓이 게재되었다. 그러자 사간원 헌남 최천건이 조보의 발행처인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탄핵했다.

“중국 장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비밀에 부쳐야 하는데, 어떤 일인지 조보에 실려 외부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담당 승지를 문책하소서.”

보도지침을 어긴 죄

광해군 역시 보도지침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다.

“1619년(광해군 11년) 광해군

이 ‘지금 이후로 서궁과 저주에 관한 일은 조보에 내지 마라’고 지시했다.”

서궁(西宮)은 광해군에 의해 쫓겨난 폐비 인목대비가 유폐된 덕수궁을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인목대비전 소속 궁녀들이 선조의 첫번째 정부인인 의인왕후의 능에 뼈를 묻고 잘라낸 고깃점에 임금의 이름을 써서 까마귀와 솔개에 먹였다’는 바로 그 저주 사건을 일컫는다.

광해군 대신 인목대비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옹립하기 위한 저주했다는 것이다. 광해군은 자신이 폐한 인목대비 이야기는 물론 저주니 뭐니 하는 민감한 이야기들이 조보를 통해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떠오르는 신흥국 후금과 기존의 명나라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벌이던 광해군은 국경에서 올라오는 보고 역시 조보에 내지 말라고 보도를 통제했다.

또 중국이 파견하는 사신에게 미주알고주알 조선 국내의 사정을 알릴 필요가 없다면서 숨겨야 할 일은 절대 조보에 게재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럼에도 지금의 기자 격인 승정원 주서가 뭘 믿고 그랬는지 임금이 중국 사신을 맞이하면서 내린 지시사항을 모두 조보에 실었다(1619년 8월12일). 광해군의 진노가 하늘을 찌른다.

“비밀에 부칠 일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한두 번 지시한 것이 아닌데... 중국 사신과 관련된 과인의 지시사항이 모두 조보에 났다는 구나. 임금의 명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해당 주서를 문책하라.”

/경향신문

초고령사회 이탈리아의 비극..2년간 앉아있던 노인 미라

이탈리아에서 초고령 사회의 단면이 드러나는 사건이 보고됐다.

의자에 앉은 채로 죽은 후 최소 2년 이상을 홀로 방치됐다가 미라가 된 독거노인이 발견된 것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꼬모현의 자택에서 70세 여성 마리넬라 베레타의 시신을 발견했다.

최근 지역에 불어닥친 강풍 탓에 정원의 나무가 뽑혀 나갈 위험이 있다고 본 경찰이 집주인을 만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찾은 것이다.

식탁 의자에 앉은 채였던 베레타의 시신은 자연적으로 미라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단서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던 만큼 수사 당국은 고독사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베레타에게는 돌봐 줄 친인척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들은 그가 2019년 11월 이후 자취를 감췄으며, 정황상 코로나19 대유행이 덮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줄 알았다고 밝혔다.

비극이 전해지자 현지에서는 이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 등 분야를 담당하는 엘레나 보네티 기회균등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고독한 이들이 인지되지 못해 일어난 사건에 마음이 아프다"며 "누구도 홀로 내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현지 대표 일간 코리에레 델라세라도 1면에 사설을 실고 "베

레타는 '의인화한 고독'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농경사회 때 분주하던 집성촌의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때는 연대가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돌봤다"며 "현대 가족은 축소돼 배우자나 자식이 없으면 베레타처럼 돼 혼자 죽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일간 일 메사제로도 "닫혀 있는 작은 집의 문 너머 그간 보이지 않았던 베레타의 삶에 얽힌 미스터리리는 우리에게 끔찍한 교훈을 알려준다"면서 "정말로 슬픈 점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리넬라 베레타라는 사람이 사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이탈리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연령층 중 40%가까운 인구가 홀로 살고 있으며,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친인척이 없다고 답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2.8%로 세계에서 일본(2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수치는 23.4%까지 늘었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이탈리아는 일본, 독일 등과 더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표 국가로 꼽힌다. 한국도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는 신드롬 3가지

신드롬은 하나의 공통된 질환, 장애 등으로 이루어지는 증상, 또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증후군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런 증후군 중에는 동화의 이름이 붙은 것들도 적지 않다. 알고 보면 심각한 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 '알씨엔아이닷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에 대해 알아본다.

1. 파랑새 증후군(Bluebird syndrome)
동화 파랑새의 주인공처럼 자

신의 현재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막연한 미래의 행복만 추구하는 현상. 요즘은 한 직장에 안주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직장인을 가리킨다. 입사한 지 1년 미만 직원의 65%가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 램프 증후군(Lamp syndrome)

동화 알라딘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요정에서 유래했다. 이 증세를 앓는 사람들은 '걱정의 마술램프'를 가지고 산다.

걱정의 종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일들에 관한 것(40%) △

현재 돌이켜도 어쩔 수 없는 상황(30%) △자신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12%) △건강 문제(10%) △이유 있는 걱정(8%)이다. 그런데 이중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8%에 불과하다.

3.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로 남아 있기는 바라는 심리. 어린이로 대우받고 보호받기를 원한다. 성인이 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나 정부의 보호만 바라는 기업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코메디닷컴

화물선적 예약
매주 화요일

화물 마감
매주 목요일

선박 출항
매주 월요일

화물 도착
출항 30일 이내

60일 운송
- 트럭 -

90일 운송
- 트럭 -

항공 운송

중국수입
트럭운송

운송비용 USD 3/KGS 부터

TON OVER화물: 별도 문의
"A통관방식 운송"
도착지 통관 세금 불포함

CNK ALMATY LOGISTICS Co.,Ltd / 주식회사 씨엔케이 알마티 로지스틱스

+7 701 800 0341 담당자 김진성 이사 / 카톡ID : ss01066140602 / 사무실 : +7 707 747 7995 / 송기범 대표: +7 777 018 6555

알짜배기 유머 시리즈

사춘기 부부_2(#61)

무슨일인지 민철에게는 행운이 찾아온것 같은 기분으로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얼굴의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 무조건 술에취해 강패들에게 맞았다고 박박 우길 참이었는데 미자의 이런 행동은 참말이지 민철에게는 행운인 것이다.

다음날 아침 민철은 정성스럽게 끓여준 북어국을 먹으면서 연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그도 그럴것이 헤지와의 데이트를 하고서 이렇게 극진히 대우를 받으니 민철의 입은 찢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미자가 갑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고 꼬치꼬치 캐 묻지를 않고 마치 죄를 은 것처럼 민철 자신에게 이토록 잘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것이 약간의 불안감을 던져 주고 있었다.

민철은 어제일을 술때문에 통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표정으로 은근히 어제 일을 들춰 내려했다.

"어제.. 도둑이 들었어?"

민철은 분명 미자가 도둑이 어찌고 저찌고 한 말을 기억해내며 넌지시 말을 던져 보았다. 미자는 즉각적으로 되 물었다.

"기억 안나?"

"모르겠어.. 술에 너무 취해서 ... 누구한테 맞았다는 느낌은 있는데."

민철은 불쌍한 표정을 미자에게 더 많이 보이기 위해 얼굴을 찌프리며 미자에게 얼굴을 정면으로 돌려 보였다.

그러자 '미안해..'라고 말머리를 꺼내더니 연신 입금앞에 신하처럼 어려워 하며 자초지종을 얘기해 나갔다.

미자의 얘기를 다 듣고서야 민철은 어제 미자의 행동을 알것 같았다.

'누군지 미자의 몸동이에 맞은놈은 무지 아팠겠지만.. 나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 주었구나.. 이젠 무슨 행운의 징조란 말이나.'

민철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일이 자신의 축으로 해서 돌아갈것 같은 좋은 예감을 받고 있었다.

민철은 죄인이 되어 있는 미자에게 아주 너그럽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회심의 미소까지 짙봉해서 미자를 다독 거렸다.

"짜식 - 잘했어. 비록 내가 이렇게 됐지만 집안을 수호할 수 있는 용사가 있다는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 나중에라도 내가 어디 갔을때 아주 안심이 되겠어. 너무 신경 쓰지마.. 이정도의 상처는 금방 낫을거야. 난 네가 정말 대견스럽다.."

쪽 -

민철은 미자의 볼에 강하고 힘있게 뽀뽀를 해주었다. 정말 그렇게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미자가 이쁘고 사랑스러워보일 수가 없었다.

미자는 너무 세게 뽀뽀해서 얼얼한 볼을 만지며 넓은 민철의 마음을 한없이 고마워 하며 나름대로 민철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야 - 근데 너 어디서 그렇게 술마시고 늦은거니?"

"으...응.. 동영이 녀석하고.. 그녀석도 군대에 간다더라."

민철은 미자가 지나칠것 같은 질문을 해와서 뜨끔했지만 더 물어 볼것 같은 그말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믿고 더이상 묻질 않았다.

민철은 행운의 상황으로 위기를 모면 했을뿐만 아니라 미자를 휘어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겨우 이런일에 미자가 민철에게 잡히지는 않겠지만 그런대로 그전 보다는 많이 부드러워 지고 순해 진것은 사실이었다.

의외의 상황으로 미자가 순하게 말을 잘듣는 순종말이 되자 민철은 그때를 이용해서 온갖 심부름을 시험삼아 시켜 보았다.

담배달라.. 재떨이 달라.. 커피달라.. 뽀스달라(?).. 미자는 순순히 모든것을 아무뭇꾸없이 해주었다. 민철은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뽀뽀까지 달라고 하다가 미자의 큰주먹에 펌 하고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미자는 민철이 잠시 목욕탕 간사이에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그 이상한 소리를 했다.

" 에이구 ... 술이 웬수지.. 웬수야.. 글썽 말이야.. 술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으로 몰려 흡심 맞았다는 거야."

"누가요?"

미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다.

"누구긴.. 우리 멍청한 바깥양반이지..새댁 신랑은 술 그렇게 많이 안먹지?"

"많이 먹는 편인데."

"이이그 ~그놈의 술이 웬수라니까..어제 글썽 자기 집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어떤 억센 여자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도망쳐서 .. 간신히 집을 찾아 돌아 왔다는거야.. 맞아도 짜지.. 짜~"

/subkorea

매일 2분씩 하는 플랭크, '이런' 변화가?



몸의 중심부인 코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플랭크'가 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로 바닥을 지탱한 뒤, 어깨부터 발목까지 바닥과 일직선이 된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이다.

매일 2분씩 이 같은 운동을 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미국생활지 팝스기에 소개된 플랭크 챌린지 도전자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 다양한 변주 가능

플랭크는 기본 동작뿐 아니라 응용 동작도 가능하다. 도전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운동 시간부터 강도까지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는 것.

기초체력이 약한 사람은 30초 혹은 1분 정도로 플랭크 운동을 시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2분 플랭크를 시도해볼 수 있겠다.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하는 기본 플랭크 동작이 버티기 힘든 도전자는 푸시업을 할 때처럼 팔꿈치를 편 상태로 하는 '하이 플랭크'를 도전하기도 한다. 반면, 하이 플랭크 자세가 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팔꿈치를 굽힌 기본 동작인 '로우 플랭크'를 유지한다.

어떠한 동작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맞는 플랭크 강도를 유지하면, 팔과 복부 등의 근육 떨림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떨림이 느껴지면서 힘이 든다면, 플랭크 운동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 매일 지속해도 쉽지 않은 도전

매일 2분씩 플랭크를 지속하면 5일 혹은 10일 후엔 플랭크가 좀 더 쉽고 편안해질까? 그렇지 않다. 도전자들은 일주일 뒤, 혹은 이주일 뒤에도 여전히 플랭크가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힘이 들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플랭크가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을 느끼는 도전자들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지 못할 뿐 정확한 동작과 강도로 지속하고 있다면 몸은 변화한다.

플랭크 일지를 매일 기록한 도

전자는 어제와 오늘은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한 달 전과 지금의 나는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만약 2분 플랭크가 쉬워졌다면 30초 이상 시간을 늘리거나 몸의 앞면이 위로 가도록하는 리버스 플랭크, 몸의 옆면으로 돌아하는 사이드플랭크 등 동작을 바꿔 시도해보도록 한다. 매일 해도 쉽지 않은 자세 혹은 운동 강도를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 다른 운동도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

플랭크는 코어를 단련할뿐 아니라, 몸의 다른 부위의 근육들도 활성화하는 전신 운동이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체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몸을 움직이기 귀찮고 운동을 싫어했던 사람도 지속적인 플랭크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다른 운동도 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신체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다른 형태의 운동을 할 의지가 생긴다.

지금도 이불 속에 머물며 "운동이 가장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2분 플랭크를 시도해보도록 한다. 당분간은 귀찮게 느껴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신체활동이 즐거워진다.

◆ 소요 시간 대비 큰 개선 효과

하루 2분은 누구나 할애할 수 있는 운동시간이다. 시간을 따로 내 운동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2시간 심지어 20분도 아닌 2분의 시간은 낼 수 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비해 운동 효과는 매우 크다.

2분은 경우에 따라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플랭크를 하는 동안의 2분은 그렇지 않다. 몸에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플랭크라는 작은 도전의 성공이 장기적으로는 좀 더 큰 도전을 시도하는 원동력이 된다.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코메디닷컴



대선: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할까?

대통령 선거 한 달을 앞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 확진자, 기존 투표 방식 어땠나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사전 투표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병원이나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일이 임박했을 때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다음 달 4~5일 사전 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이 나는 경우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투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특별 투표소 이용도 불가하다.

앞서 선관위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마련한 '코로나 격리유권자 투표권 보장 계획'을 세우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미확진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 후 투표일 당일 오후 6시 전 투표소에서 번호표를 배부받아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선거일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돼,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9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6만 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대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총선이나 재보궐 선거 때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확진자 참정권 행사 방안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투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는 여야가 발의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가 종료된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리해 이와 관련해 구체



적인 시행안도 보고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유권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과 작년 말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고, 확진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시행안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는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이들이 투표하려면 방역 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개혁위는 회의를 속개해 신속하게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혁위가 의결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정개혁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인데, 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월 말, 확진자 최대 17만 명까지 갈 수도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만9567명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확진자 수는 매주 2배가량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 19일 5804명에서 1월 26일 1만3008명으로 2.2배 늘었고, 설 연휴 마지막 날 2월 2일 2만268

명으로 1.5배, 그 이후 다시 일주일 만에 2.4배 불어났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BC코리아

탈북민 월평균 소득 227만원... 10명 중 7명 '한국생활 만족'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27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10명 중 7명은 한국생활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북한 이탈주민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탈북민들의 월평균 임금은 일반 근로자 평균보다 45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격차는 지난해 52만원, 2019년 59만9000원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3%로 지난해 60.1%보다 다소 올랐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62.1%), 2018년(4.8%)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고용률은 56.7%로 지난해

(54.4%)보다 소폭 개선됐으며, 실업률은 7.5%로 지난해(9.4%)보다 나아졌다.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6.5%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자녀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31.3개월로 조사됐으며 4개월 미만 근속자와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일자리 잃었던 취업취약계층 탈북민의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4개월 미만 근속자는 2020년 19.2%에서

지난해 23.3%로 증가했다.

특히 재취업자 증가로 평균 근속기간이 0.3개월 하락했는데 이는 일반국민 평균 근속기간 역시 2개월 하락하는 등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장인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평가팀 박사는 BBC 코리아에 "2019년 코로나 이후 하락했던 모든 경제지표들이 지난해 2분기 이후 뚜렷한 호전세를 보였다"며 "실직했던 탈북민들이 취업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더 나은 한국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취업 및 창업지원이 24.8%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지원과 주택관련, 교육 지원 등을 꼽았다.

탈북남성 306만원 > 일반여성 209만원

탈북민과 일반 국민의 월평균 임금 차이 뒤에는 '성별 임금격차'도 작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는 탈북민과 일반국민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117만6000원 많았다.

장인숙 박사는 "탈북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76:24로, 탈북민 경제활동인구 3명 중 2명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탈북민 전체 평균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인구학적 구조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실제 탈북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306만원인 반면, 일반 여성 임금은 209만원으로, 탈북 남성 소득이 30%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박사는 "따라서 탈북민과 일

GOLDEN TOUR 사무실 이전

골든투어 카자흐스탄

Since 1998

한국 비자 접수 대행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한국 의료 투어 상담 환영
현지 투어 가이드 진행
그룹 및 개인 한국 투어 상담
누르타우 골프장 쿠폰 판매

취백출리 76번지
 8(701) 711 4894(한)
 8(701) 368 0100(러)

반국민의 임금격차는 남녀 성별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며 "통계학적으로 남녀를 50:50으로 맞춰서 평균임금을 추정하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이 일반 국민의 94% 정도"로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새로운 한국사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적응하고 살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탈북민이 지원만 필요로 하고 세금만 축낸다는 식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BBC코리아

이모네 게스트 하우스 · 한정식당

- 단체(50, 10, 8인석 등), 비즈니스룸 완비
- 한정식, 중식 런치
- 김치, 깍두기 등 산업체 납품 가능한 시설: 반찬 사전 주문 가능
- 게스트 하우스(유학생 장기 투숙 환영)

위치:
카작빌
미시날리예바

+7 727 299 1147 / +7 707 494 6190

직영 농장 운영 | 신선채소

(식재 배합 가능) | 반찬류 김치류 공급

SINCE 1990 **다함께 좋은 세상 두레** Du-Re Mart **두레** "배달가능"

한국식품과 공산품 일체, 각종 떡과 신선육 (도/소매 상담 환영)



- 넉넉한 주차공간, 고전 인테리어와 미로식 쇼핑동선, 항상 정감 있는 그곳!!
- 각종 떡, 신선육, 한국식품과 공산품 일체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주일은 쉽니다)
주소: 알파라비 자마카예바 24
263-2291 / 8(771)852-6914

카자흐스탄총판 **7(세븐) Mart**
*주일은 쉽니다(2019년부터)

면류



장류



식품
(냉동포함)



생활 · 주방용품 · 기타
아흐메토바 1번지(간도사바-사이나)
8(727)263 9969 · 8(701)907 4639 · 8(701)204 3488

navien

ЭКСКЛЮЗИВНЫЙ ДИСТРИБЬЮТОР
ПРОИЗВОДИТЕЛЬ КОТЛОВ №1 в Корее
КОТЛЫ ОТОПЛЕНИЯ от 100кв.м² до 4000кв.м²



ГARANТИЯ КАЧЕСТВО СЕРВИС

Отдел продаж:
050019, РК, Алматы, ул. Чаплина
(ул. ул. Халиуллина), д.71/66
Тел.: 8 (727) 234-42-87, 243-69-83
Mob.: 8-775-891-17-15
sil_o_energy@mail.ru

Отдел продаж:
050083, РК, Алматы
мкр. Жетысу-1, д. 47
Тел.: 8 (727) 376-82-75, 376-81-45
Mob.: 8-775-890-71-78
navien.kz

Заявки по сервису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одному номеру:
Сервисный центр по ремонту и установке на гарантию NAVIEN в Алматы: 8 800 070 02 22
звонок БЕСПЛАТНЫЙ с городского и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한솔한의원

한의원 번호:
+7 (700) 515 70 40
+7 (727) 293 07 40

- ☑ 도침, 봉독, 사혈 및 물리치료
- ☑ 한약 및 보약탕전 처방
- ☑ 다이어트 한약 (식욕억제)
- ☑ 마사지 (15분, 30분, 60분, 90분)

주소: 잠블라 135 (잠블라-무랏바에바)
택시 이용시 '목적지'에 hansol 입력

이재원 원장 약력
경희대학교 한의대 졸업,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과 석사.
미국한의사 면허 소지, 전 인천해광한의원 원장.
홈페이지: www.hansolmed.kz

진료: 월-금 8:00-18:00, 토 8:00-13:00 (점심시간 12:00-13:00)

GS Oil **엔진오일 교환점**
Kixx Korean No.1 Lubricants!
Hing Quality and Reliable Products 8(705)573 7229(한국어)

엔진오일 / 미션오일 / 부동액 / 브레이크액 교환



#1 교환샵 / 잔도사바
317-3370(러시아어)



#2 교환샵 / 따스닥
+7 727 317 3525
메르겐, 알레그



#1 교환샵 #2 교환샵
잔도사바 따스닥
스마트폰 어플로 위
QR 코드를 스캔하면
2GIS에서 위치 확인 가능

교민할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중앙아시아 허브교회
8(701)373-8821


알마티한인교회

새벽기도회 ▶ 화~토(06:00)
주일대예배 ▶ 12:30
어린이부예배 ▶ 12:30
청소년/청년부 ▶ 14:00

+77757054416 (김광선)
카톡: akckskim



법무 · 회계법인



- 회계 및 세무
 - 회계 가장 자문 및 대행
 - 회계 세무 실사
 - 통관 업무 대행
 - 내부 감사 업무 대행
- 기업 법무 자문 & 컨설팅
 - 현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 및 청산 업무 대행
 - 현지 법인 법률 실사/ 법률 자문
 - 중재 및 소송 수행
 - 인허가 자문 및 대행 / 건설면허, 외국인 취업 허가 등 /
 - 영주권 신청에 대한 상담

주소: 바겐바이 바투라 150 (Богенбай батыра 150)
'카담 인베스트' 비즈니스 센터 6층 6,7호
8(727) 292 0018 · 8(727) 292 0028 · Kim Oleg 8(771) 300 2171
E-mail: cisgroupkim@gmail.com, olegkk@mail.ru


2022년도 알마티 토요일 한글학교 교사모집

알마티 토요일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교민 자녀들이 한국 교과과정에 따라 공부하는 주말학교입니다.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유치반도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교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교사 지원 자격
 - 1) 대학 졸업자로서 교사의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
 - 2) 안정적인 비자를 취득한 자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소 1년간 교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
2. 교사 채용 우선 선발 기준
 - 1) 한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자
 - 2) 유치원, 초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 3) 교육 관련 유경험자
 - 4) 어린이 미술지도 유경험자
 - 5) 경험은 없지만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많고 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자
3. 지원 학급 및 인원

학급	인원	비고
다문화 유치반	1명	러시아어 가능자 (초중급)
초등부	2명	
4. 학기일정

1학기	2022년 2월 5일 ~ 5월 21일 (토)	10:00 ~ 13:00
2학기	2022년 8월 27일 ~ 12월 10일 (토)	10:00 ~ 13:00
5. 채용 방법 및 보수 관련: 이력서 제출 후 개별 면담
6. 이력서 제출: mariakimkz@gmail.com (김영주 교장: +7 775 114 5460)
7. 이력서 제출 마감일: 2022년 1월 1일



힘내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Hannah E-Children Center

한나 영어 어린이 집 ; 내 아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

대상연령: 30개월-취학 전 어린이

어린이 집 교육프로그램

- 한국 어린이집 정규 교육과정 중심
- 영어교육
- 몬테소리 교육
- 생태 교육

토요 STEAM 융합프로그램

- 코딩
- 로봇교육
- 로봇코딩 등



초중등

- 화, 목 학습중심 방과후반 (국어, 수학, 논술, 주산암산 창의과학, 보드게임, 영재놀이)

• 교육 시간: 정규반 9시-3시/ 종일반 9시-5시 (개별 피아노, 유아체육, 발레 등) •

교육상담: 8707 700 8743(대표전화), 8705 710 7786 / 찾아오시는 길: '마르솔라-살라피나' 주변으로 이전

한식당

대형방켓 룸원비
모든 메뉴 배달 가능
편안한 주차공간
한국에서 가져온 한우와 해산물

한국공산품 판매
각종 반찬과 식료품 판매
위생적인 육류제품 판매

한국마트

274-0487
8(777)012 7776
잔도사바 27a

다사랑

늘푸른건강원 8(701)392 8880

방울토마토미용실

커트 · 퍼머 · 염색 · 메이크업
얼굴&전신 마사지 · 피부관리 · 타투

예약 필수

일요일
영업
합니다

주소: 마나사 57번지
8(701)335 3362/8(771)444 6641

알마티 부동산

▶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임대/매매 ◀

연락처: 8-701-063-3933 (KO)
8-778-591-0254 (RU)
카톡 ID: Almatybds, 알마티부동산
email: almatybds@gmail.com

스키(SKI) 동호회

스키/보드를 사랑하는
교민, 유학생을 위한 모임

- >> 침블락, 악블락 시즌모임 진행
- >> 초급자도 참여 가능
- >> 초/중급 무료 포인트 강습(비용없음)

문의: +7(702)908 0266 <http://cafe.daum.kazakski>

카자흐스탄알마티다구동호회

매월 3째 주 당구대회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무에게 문의해주세요.

연락처: 회장 홍성석 8701-012-0008 홍무 윤평식 87082225119

카자흐스탄 한인 축구 동우회

축구를 즐기고 FC KiK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Enjoy Football! Like FC KiK!!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웨브첸까-자로가바(Olza Sports)
+7 701 744 3633(오영교 회장) +7 701 784 9776(김선웅 총무)

천산 산악회 토요일 정기산행

집결시간: 매주 토요일 9시
집결장소: 리츠 플라즈 주차장
산행장소: 천산 일대
참석대상: 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
문의: +7 778 200 30000

농구동호회

토요일
오후 3시

농구를 좋아하는 모든분 환영!

★실력은 집에 두고 열정만 가져오세요!★

대표: 박현기 +7775 257 2266 도움: 김상호 +7775 385 5062
팀닥터: 이재원 원장 +7708 298 9258

카자흐스탄 다문화 가정 모임

- 카즈 다모 -

카자흐스탄 거주 다문화 가정의 소통과
나눔에 관심있는 가정을 환영합니다.

진재정 회장 : 8 701 711 4894 / 이경원 총무: 8 702 462 0089

스터디그룹

자기개발 학습동호회 "콩카루"

콩카루(Kor, Eng, Kaz, Rus)스터디그룹은 여학생 중심 자기개발 학습동호회입니다.

영성강의 시청, 공동학습, 학습자료 공유, 자활학습 | 카톡ID: 35151234 전화: 778-200-3000

한식전문식당
8(727)269 6866
숯불구이 전문/일요일 영업

게스트 하우스
1인1실·사전예약필수

장기 투숙시 할인 적용
+7 7013319158

마트(MARKET)
8(727)269 6851
생필품·식재료·공산품

Korean Restaurant
명가

모든 메뉴와
치킨 배달 가능

- 음식 주문시 마트물품 같이 배달 됨
- 배달요청: 8(701)331 9158



구글지도에서 **명가 한식당** 또는 2GIS에서 **Myeong Ga** 를 검색하세요

baganashil@hotmail.com



애플렌터카

내차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드라이브를 위한 곳

최고의 서비스
차별화된 시스템
고객 맞춤 감동서비스



렌트 및 상담전화

+7 727 393 2580(RU) • +7 701 111 3567
+7 701 484 0267 • +7 777 686 9025

[중요 공지]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유지,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 (2.4부터)

○ 우리 정부는 1.28(금)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등 상황을 고려하여, 2.4(금) 0시부터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발표함.

- 해외 입국자 격리를 10일에서 7일로 단축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중단 조치 유지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경우 포함), 5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시 추가 통보 예정 /끝/

1.28(금) 주말마티총영사관

Masisso 카페강남

관광, 예술, 문화의 중심지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마시소 카페강남은 연회 및 각종 행사가 가능하며 시원한 야외 Terrace와 Garden에서도 한식, 고려인식, 중식, 양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영업시간: 10AM~02AM

주소: 쥐백졸리 102a (Жибек Жолы 102ф)
전화: 8-778-348-9666(Ru), 8-778-333-3701(한)

Masisso 나자로바예바

한국식 인테리어(VIP Room), 정갈한 음식, 저렴한 가격
☞ 추천메뉴: 삼겹살 또는 쇠고기 세트메뉴, 보신탕

영업시간: 12AM~24PM

주소: 나자로바예바 57 / пр. Назарбаева 57
전화: +7-727-273-2457

Masisso 시폴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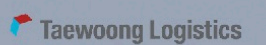
깔끔한 인테리어로 새롭게 오픈한 마시소 시폴리나 넓은 주차장과 10인 단체석 준비완료

영업시간: 11AM~24PM

주소: 시폴리나 183a / ул. Сейфуллина 183a
전화: +7-727-294-4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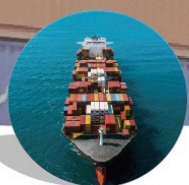


KOSDAQ 코스닥 상장 법인



유라시아 물류 강자

태웅로지스



국제화물운송서비스



내륙트럭운송서비스



3국간 운송 서비스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수출입통관서비스



사무실 주소: Block 2A, 502 Office, 5F "Nurly Tau", Business Center 5, Al Farabi Avenue 법인장: 한상운 HP) +7 701 012 2360 Email: sasha77@e-tgl.com

Адрес редакции : 050062, Казакстан, г.Алматы, мкр. I, д.73-Б, офис 23
тел.факс. 3929305
E-mail : haninshinmun@hotmail.com
Homepage : www.kazkorean.kz

Выходит 2 раза в неделю Тираж 500 экз.
Газета отпечатана в типографии АО "Алматы-Болашак"
Адрес типографии : г.Алматы, ул.Муканова 223-Б.

тел.392 93 05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ции РК.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No 11069-Г от 19 августа 2010г. Газета

<Ханин Синмун>
Собственник: ТОО <<Ханин Синмун>>(город Алматы)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Копесбаева Г.Е.